

“사찰 대소사 우리가 앞장서요”

신행연장

통도사 쿠산티봉사반



통도사 쿠산티봉사반 회원들이 여름수련대회 참가자들이 입을 법복을 다림질하고 있다.

장카비가 역출산 자락을 적시던 11일, 통도사 설법전 지하에서는 노란조끼를 입은 보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4일로 다가온 1차 수련회를 위해 지난해 사용했던 법복을 다시 소독하고 짝을 맞추어 정돈하느라 습한 날씨에 구슬땀이 흐른다. 아침나절 내내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법복을 다림질하고 잠시 쉴 틈도 없이 발우 정리에 나선 이들은 통도사 쿠산티봉사반(회장 최여래지) 회원들이다. 수련회 준비가 이들의 묵이듯 화합 후 뒷정리도 이들 차지다.

“수련회가 6차까지 있으니 수련회 준비와 뒷정리로 올 여름은 다 가져요. 한 가족처럼 마음 맞추어 한결같이 일하는 회원들이 고마울 뿐이죠.” 최여래지(56) 회장의 말처럼 쿠산티봉사반의 여름은 일상을 벗어난 수련을 꿈꾸는 이들의 뒷바라지에 모두 바쳐진다.

98년 통도사 교리반과 경전반 출신들로 창립된 쿠산티봉사반은 통도사의 대 소사를 돌보는 살림꾼으로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사중 일도 모자라 매월 한번은 노인들 간식을 챙겨주고 자비원을 방문해 청소와 하고 있다. 이밖에 매월 조하루, 보름 법회

장과 봉사를 겸하며 나이 들어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한결같이 봉사할 수 있을 발원하고 있어 어머니뻔 회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결코 쉽지 않는 행을 통해 불법의 진수를 체득하는 이들의 정진은 그러나 봉사에서 그치지 않는다. “힘들게 일하는 틈틈히 시간을 내어 천배를 하고,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독경하고 모든 분들이 한시라도 수행을 늦추지 않아요” 이법연화(45) 총무의 설명이다. 봉사와 정진을 돌보지 않기 위해 월 1회 법회와 특강을 가지며 수행을 점검하기도 한다.

통도사 교무과장 현담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상 내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흔적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고 가는 봉사에 항상 고마울 뿐”이라며 “뜻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귀감”이라고 칭찬했다.

목욕히 행하고 가는 쿠산티봉사반의 보람과 기쁨은 사람들이 던지는 “수고하시네요” 인사와 어디서든 반갑게 인사를 건네오는 불자들의 환한 웃음이다. ‘노란조끼’가 어니트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마음가짐과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수련회 참석하고 싶을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참석하고 나면 누가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나 하는 걱정 그 마음이 짝 짝 돼요.” 김정심화(58) 보살의 말은 산사를 찾아 수련을 하는 많은 이들이 한번쯤은 새겨볼만한 말이다. 절이나 일사에서 누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사소한 혜택이 쿠산티봉사반의 노란조끼가 상징하듯 많은 이들의 노고에서 비롯됨을 일깨워 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천미희 기자 mhichoon@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산사로의 단기출가 삶의 에너지 재충전 기회”



대명스님

동두천 불연암 서울포교당 주지

방학이나 휴가철이 오면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은 하나같이 각종 수련회를 개최한다고 매우 부산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준비가 잘 돼 조직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수련회가 있는가 하면, 주제도 없이 무엇을 위한 수련회인지도 불분명한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하는 일이다보니,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더러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련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의 준비가 철저하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수행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련회에 임하는 불자들의 자세가 수련회 프로그램이나 그 진행의 좋고 나쁨을 떠나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이 수련회의 진

여유로운 마음가짐 남 배려하는 자세로

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동참해야 하고, 그것은 또 수련회에 참가한 불자들 스스로 더욱 더 신심나는 수행 정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불자들에게 올바른 자성을 깨우치고 진정한 불법을 맛보는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련회에서 보다 많은 깨달음의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행이란 ‘끝없이 반복하여 구함이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자들 중에는 조금의 나머지 1박 2일이 나 2박 3일 간의 수련을 통하여 당장 도인이나 될 것같이 서두르는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련회란 일상의 자기 생활을 조금 다른 환경과 공간으로 옮겨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수련회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에너지 재충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스스로 4가지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첫째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바쁜 마음이 앞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조급하게 행한 일은 그 순간을 지난 다음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기심만 자라고 자기 주장이 많아져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큰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낮출 때 진정한 수련회의 참 맛을 보지 못했습니까.

셋째는 삼보를 경배하는 마음이 확연해야 합니다. 먼저 부처님을 경배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승단을 존경하는 마음이 참마음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수행으로 진정한 가르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신념으로 정진 할 때만이 여러분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후회할 남기지 않는 보리심을 내어 재충전된 에너지로 사회와 이웃 그리고 가족을 위한 진정한 보살행의 거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곧 ‘상구보리 하회중생’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평상심이 도라는 확연한 진리를 깨우쳐서 수련회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부처님을 진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여름 수련회를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용맹 정진할 전국 불자들에게, 이 4가지의 마음을 여겨하게 실천해 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신행 캘린더

7월 18일 (수)

■개관 10주년 기념법회=대전 보현문화회관은 오후 7시 개관 1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월명사 주지 모허스님은 ‘임장 소멸의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042)631-6555

7월 20일 (금)

■선과 생활 주제 워크숍=한국선학회는 해인사 홍제암에서 ‘선과 생활’을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실시한다. (02)2260-3135

■명화운동 강연(사) 좋은 벗들은 오후 7시 30분 정도회관 3층 강당에서 한국대인지퇴금지협의회 조재국 씨를 초청 ‘국제평화운동’을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한다. (02)587-8996

7월 21일 (토)

■시민위한 특별강좌=전북 불교대학은 우후 3시 큰법당에서 ‘회음의 세계’를 주제로 시민을 위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동참비 없음. (063)226-7878

■하계수련대회=법륜불자교수회는 22일까지 영주부석사에서 제27차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53)819-1450

7월 22일 (일)

■금산사 심선수련회=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는 8월 14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선(十善)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심약참회, 1080배, 심선계수계시 등으로 진행된다. (063)548-4440

7월 23일 (월)

■어린이 여름캠프=정도회는 26일까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05)587-8990

■참선 강좌=우곡선원은 8월 18일까지 27일간 부산 지원인 해운대 우곡선원에서 참선강좌 및 좌선 실수를 실시한다. (02)529-5027

7월 25일 (수)

■7월 정기법회=한국조계종 경산조계창 금강회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관음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3)810-0272

7월 26일 (목)

■농아인 수련대회=광림사 농아인 불자회는 29일까지 리선행 법사 초청으로 강원도 횡성 대승사에서 2001 여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2202-5831

생활속의 불교

공양(供養)의 의미

단지 인간이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의 목숨을 아무 거르림 없이 빼앗는다. 그러면서도 미안하다거나 죄스럽다는 생각조차 않는다. 아니, 당연시하고 즐거워하고 제법 고상한 척한다.

불살생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먹거리라는 모두 다른 생명체로부터 빼앗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섭리이다. 고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살생하지 말라 하는가.

생명 유지를 위한 살생, 그것은 공양(供養)이어야 한다.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는 입장에서 고귀한 자기 희생이며 받는 입장에서 눈물겨운 수용인 것이다. 오직 하나뿐

에 없는 것을 주고 받는 일인 만큼 고귀하고 성스러운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한날 즐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없다. 내것이라면 하찮은 물건 하나라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유익하기로 치면 사람과 조금의 차이도 있을 수 없는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매일 그토록 고귀한 한공에 의해 살아 간다. 어찌 감사하다 하지 않으랴.

그런 의미에서 식전(食前)의 합장 기도도 그 감사함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내게 바쳐진 모든 생명 공양을 결코 헛되이 받지 않으리라는 다짐이 되어야 한다. 나를 살리기 위한 모든 희생과 함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리라는 이타의 표시여야 한다.

그 고귀한 희생에 의해 살아 가면서 내 어찌 허튼 짓을 하고 악행을 하라. 내가 허튼 짓 하고 악행을 한다면 내게 바쳐진 그 공양은 다 어찌된 말인가. 너무나 억울한 희생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선행한 언행으로 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순한 빛을 다 어찌 감당하라. 생명을 바친 존재들의 억울함을 다 무엇으로 어루만지랴.

내 물건 아끼는 만큼이라도 다른 생명체를 아껴 준다면, 몸에 좋다고 딱치는 대로 잡아 먹고 즐겁다고 죽이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또 휴가철이 돌아왔다. 마구 먹고 마시고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龍眼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본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법학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사상 · 불교미술 및 교양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학교수) · 문용식(동국대학교수) · 권만준(동국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권기중(동국대학교수) · 최종식(동국대학교수) · 윤영수(문화재단문헌위원) · 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로케(동국대학교수) · 유진스님(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병철(동국대학교수) · 오국근(동국대학교수) · 정병호(동국대학교수) · 계환스님(동국대학교수) · 김상현(동국대학교수) · 김상영(승가대학교수) ·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 · 장희욱(동국대학교수) · 차차씨(동국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산반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우리춤학과 (30명)	·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우리춤반)	통산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문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7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불교 미술학과 · 우리 춤학과 개설

● 불교미술 개설 취지
불교미술에 대한 깊은이해와 함께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번상도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불보살님에 대한 신심과 예경을 표현하고, 1600년의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심미안을 체득, 전법과 포교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우리 춤학과 개설 취지
우리의 몸 속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의 춤가락을 신명나게 배워 전통의 맥을 잇고, 불교의 사상과 몸짓이 만나 부처님께 춤 공양과 깨달음의 길로 다가가는 과정.

● 지도교수 및 내용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염불가락, 티끌가락, 구거리 가락) ③ 작법 기본(춤의 기본 시위와 바라놀림) ④ 복과 장단기본(복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지도교수	이애주 (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

● 교과목

이론편	· 불교미술사 (인도, 서역, 둔황, 중국, 티베트, 남방) · 고려불화, 조선불화, 현대불화 · 불화제작의 이론 (단청, 화엄선종, 번상도, 만다라)
실기편	· 기초선구기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 · 단청, 선화 (달마도), 민화, 담채화 · 번상도 (법화, 화엄, 정토), 만다라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 지원자격 : 불교미술을 통하여 불교신행하고자 하는자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문의전화 : 02) 732-1206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